

尹 “北-러 군사 거래는 한국 안보 겨냥... 좌시 않을 것”

유엔총회 기조연설...북핵·미사일, 전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탄소중립, 원전·수소도 활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과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

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할 수 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

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온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세계개발포럼(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 與 “적격”·野 “부적격”

여야, 25일 처리 방안 협의...재적 의원 과반 찬성해야

국회 인사정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증가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법원을 바로 세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등 일부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을 나열한 뒤 “정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25일에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연합뉴스

윤재옥 “李 체포안, 민심 반영한 결과”

국힘, 총리 해임안·검사 탄핵안 가결에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여전히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의 시간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오늘 이 상황으로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현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해임의 사유가 없고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사안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 현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추진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힘과 동행 서약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1일 여당인 국민의힘 과 동행 서약식을 갖고 연대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서약식에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모든 동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2023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위태롭게 서 있는 위기의 시대”라며 “결국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저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그 결과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1호 영입 현역 의원이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밟아 시대전환에 복당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